



#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승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1433-5(홍보국)

## 103위 성인

### 성 현석문 가롤로 (1799-1846)

현석문은 서울 중인(中人) 계급의 독실한 교우 집안에서 태어났다. 훗날 그의 가족은 모두 순교자가 되었다. 천주교 한양 회장으로 임명된 현석문은 박해가 끝난 뒤 순교자들의 행적을 정리한 「기해일기」를 펴냈다. 그리고 포졸들에게 쫓기는 중에도 이름을 바꾸어 가며 각지에 흩어진 교우들을 찾아가 격려하였다. 한편 중국 교회에 밀사를 보내고, 1845년에는 김대건 신부와 함께 상해(上海)에 다녀오기도 하였다.

1846년 김대건 신부가 체포된 뒤, 김 신부의 집에 남아 있던 교우들과 함께 피신했던 현석문은 결국 7월 11일에 그 일행과 함께 체포되었다. 체포된 뒤에도 함께 갇힌 교우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던 그는 같은 해 9월 19일, 50세의 나이로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성화\_문학진 작, 「한국 103위 순교 성인화 특별전」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신심 미사

소리 주보 ▶



### 입당송

이 성인은 하느님의 법을 위해 죽기까지 싸웠으며, 악인들의 말도 두려워하지 않았네. 그는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네.

### 제1독서

2역대 24,18-22

### 화답송

시편 31(30), 3ㄷ르-4.6과 7ㄴ과 8ㄱ.17과 21ㄱㄴ(◎6ㄱ 참조)

### ◎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채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채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

○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

○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 피신처에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 내소서. ◎

### 제2독서

로마 5,1-5

### 복음 환호송

마태 5,10

### ◎ 알렐루야.

○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

### 복음

마태 10,17-22

### 영성체송

마태 16,24 참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나자렛 회당 성당 내부



나자렛 회당 성당 입구

예수님께서서는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친척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마르 6,4)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기 고향인 나자렛의 회당에서 있었던 일(루카 4,16-30)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자렛 회당에서의 사연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시자 이사야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봉독하신 뒤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21절) 하시니, 마을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 은총의 말씀에 놀라며 감탄하지요. 하지만 이내 그들은 어릴 때부터 보아온 “요셉의 아들”(22절)이 무슨 권위로 그런 말을 하느냐며 의심하고 분노해 예수님을 벼랑까지 끌고 가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하게 ‘예언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이미 구약 시대에 보여준 이가 있습니다. 바로 기원전 7-6세기 활동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은 아나돗인데요(예레 1,1), 예레미야도 아나돗인들에게 죽음의 위협을 당했습니다(11,18-23). 주님의 이름으로 전한 그의 메시지가 아나돗인들에게 못마땅하게 들리기도 했겠지만, 아마 혼인도 안 하고 평생 홀로 사는 예레미야(16,2)가 집안과 고을의 명예를 실추시킨다고 여긴 것도 컸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예수님 사이에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죄 없이 타인을 위해 고통을 감내한 점, 독신을 유지한 점, ‘강도들

의 소굴’처럼 타락한 성전을 꾸짖고 그 파괴를 예언한 점(예레 7,11.14; 마태 21,13; 23,37-39 등)이 그렇습니다. 자신이 전한 메시지 때문에 재판에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게 된 점도 같습니다. 구약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레미야의 성전 파괴 예고를 듣고 분노해 그를 사형에 처하려 했다면(예레 26,8-9.11), 신약 시대에 유다 기득권층은 예수님을 최고 의회와 빌라도에게 넘겨 십자가형을 선고 받게 하였습니다(마태 26,57-66; 27,1-2.11-26). 이때 예수님께서 고발당하신 이유 가운데 하나도 성전을 두고 하신 말씀(61절)이 신성모독으로 여겨졌다는 점에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해서라도 예레미야를 해치려 한 구약 시대 기득권층의 음모(예레 18,18: “혀로 그를 치고”)는 신약 시대 종교 지도자들이 간교한 말로 예수님께 올라미를 씌우려 한 일(마태 22,15)에서 되풀이됩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에 견준 예레 11,19은 ‘고난 받는 주님의 종’에 대해 말하는 이사 53,7에 반영되고, 사도 8,32.35에서는 예수님과 연결되기에 이릅니다. 이런 공통점을 감안하면,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이 “예레미야”를 언급한(마태 16,13-14) 배경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언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이는 우리가 오랜 세월 쌓아 올려 자신 있게 내세우는 지식이 오히려 자신을 속이고 남도 해칠 수 있음을 깨우쳐 주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

## 「모든 형제들」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화 사명 이행 - 평화 증진과 세계 공동체 건설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마태 28,20)하려는  
프란치스코의 「모든 형제들」

사회 현안을 보기, 복음과 전승,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기  
빛과 누룩으로 행동하기

### 제3장 열린 세계를 구상(構想)하고 싹트게 하기 ⑦ - 재산(재화)의 사회적 역할을 재구상하기

회칙 「모든 형제들」 제3장은 열린 세계를 구상하고 싹트게 하려는 노력에 있어 ‘사랑의 가치부터 연대의 가치까지’ 정신적 조건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화의 사회적 역할의 재구상(118-127항)이라는 실질적 조건과 그 함의인 ‘국제 관계의 새로운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특히, 모든 재화의 공동 사용이라는 권리가, 개인 차원에서는 국경을 넘어서도 보장되고, 나아가 사회 차원에서는 전(全) 지구적 연대와 협력이라는 윤리를 바탕으로 모든 나라 모든 국민의 권리가 되는 평화의 길을 제안합니다.

교회의 사회교리는 세상이 모든 이를 위해 존재한다는 성찰에서 ‘창조된 재화(財貨)의 공동/보편 목적’(the common/universal destination)이란 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이는 물질적이든 비물질적이든 모든 재화가 모든 사람의 존엄한 생활을 위해, 또 온전한 발전의 기회가 되기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어떤 사적(私的) 형태의 재화라 하더라도 거기엔 나름의 사회적 목적과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보편 목적의 원리는 지상 재화에 대한 모든 사람의 공동 사용(the common use)이라는 원리와 권리를 내포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공동 사용’을 전체 윤리·사회 질서의 첫째

원리로 보며, 자연적이고 타고난 천부(天賦)의 권리로 성찰합니다. 모든 형태의 사적 재산권(소유권과 처분권)과 관련해, 교회는 그 권리들이 공동 사용의 원리에서 파생된 부차적(副次的) 성격을 지니고, 그래서 재화의 공동 사용권 행사를 저해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활발하게 도와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에 관한 옛 성인들의 성찰을 소개합니다:

“가난한 이들과 우리의 부(富)를 공유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부를 강탈하여 그들의 생계를 빼앗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화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우리가 가난한 이들에게 기본적 필수품을 마련해줄 때, 그것은 우리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되돌려 주는 것입니다”(성 대 그레고리오 교황).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심지어 그리스도인에게도 재화의 보편 목적이란 원리와 공동 사용권에 관한 교회 가르침과 성인들의 말씀은 낯설거나 터무니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아마도 사유 재산권이야말로 절대적이며 불가침(不可侵)하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 전 영역에 팽배해졌고, 보편 목적이란 원리와 공동 사용의 권리는 아예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돼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

## 기둥에 묶인 그리스도

여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관을 깊이 눌러쓰고, 목에는 밧줄이 걸려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아마 뒤에 있는 기둥에 묶여 있을 겁니다. 날카로운 가시관에 찢려 흐르는 피는 작은 방울로 응고되었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작은 핏방울로 절제된 표현이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그리고 투명하고 작은 눈물 몇 방울... 깊은 고통과 고독 속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절절하게 호소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려져 조롱과 매질로 상처 입은 그리스도의 절망을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복음사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지키던 사람들은 그분을 매질하며 조롱하였다”(루카 22,63); “빌라도는 바라빠를 풀어 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마태 27,26).

이 그림은 마치 그리스도의 얼굴만 클로즈업한 듯하지만, 사실 조금도 잘리지 않은 작품 전체입니다. 현대적이고 과감한 화면 구도가 획기적인데, 놀랍게도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인 1476~1478년경 그려졌습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라고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를 떠올리지만, 사실 그 외에도 뛰어난 거장들이 많습니다. 이 작품은 과학적 사고와 휴머니즘이 꽃핀 르네상스 시대의 숨은 거장, 안토넬로 다 메시나(Antonello da Messina, c.1425-1479)의 말년작입니다. 안토넬로는 관객의 시선이 오로지 예수님의 얼굴에만 집중되도록 하여, 그분의 깊은 고뇌와 슬픔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탈리아 시칠리아섬의 북동부 항구도시 메시나(Messina) 태생인 안토넬로는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당시 베네치아는 동양과 서양, 남유럽과 북유럽 간 활발한 경제 및 문화교류의 장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북유럽의 플랑드르 미술을 접하게 됩니다. 플랑드르는 오늘날 벨기에와 네덜란드 지역인데, 플랑드르 미술은 깊은 정신성이 응축된 극사실



안토넬로 다 메시나, <기둥에 묶인 그리스도>, 1476-1478년경, 목판에 유채, 29.8cmx21cm, 루브르 박물관(프랑스 파리)

적이고 절제된 감정 표현이 특징이지요. 햇살이 풍부한 이탈리아와 달리 어둡고 흐린 날이 많은 플랑드르 지역에서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 자연스럽게 더 사색적인 성향을 띠게 됩니다. 안토넬로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휴머니즘에 플랑드르의 섬세한 사실적 묘사를 수용하여 자신만의 개성 넘치고 감동적인 화풍을 탄생시켰습니다.

인성과 신성을 모두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어리석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내놓으셨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 안토넬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고, 깊은 고독과 두려움 그리고 희노애락을 느끼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는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셨기에 수난의 고통을 덜 느끼셨을 거라 짐작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그림 속 그리스도는 ‘우리과 같은 인간’으로서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받아들이며 고통을 견디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안토넬로가 그려낸 ‘인간 예수’가 더욱 깊은 감동을 주는 이유입니다. 그 십자가가 더욱 빛나는 이유입니다. ☸



교구  
소식

**하느님의 종 황사영 알렉시오 시복을 위한 은혜의 밤**

일시 7/13(토) 17시

장소 황사영 순교순례지 영성관

1부 - 한국 103위 순교성인, 124위 복자 호칭기도 (초 봉헌, 안수)

2부 - 특강 <성령 안에서 신앙의 기쁨 / 김현우 바오로 신부>

3부 - 미사

문의 031-850-1498 순교자공경위원회

**고1~2 예비신학생 모임**

일시 7/14(주일) 13:30

장소 의정부교구청 5층 경당

※ 7, 8, 9월 중등부 예비신학생 모임은 없습니다. (9월은 추석 연휴로 없음)

**가정기도 <감사> 제4기 신청**

30~40대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90일 기도 프로그램

기간 8/3(토)~10/31(목) [90일]

대상 30~40대 기혼자 (부부 또는 개인)

회비 1만원 (가정기도 감사 노트 제공)

접수 7/20(토)까지

문의 031-850-1448 가정사목부



신청 ▶

**의정부교구 제142차 ME 주말**

날짜 7/19(금)~21(주일)

장소 민족화해센터

대상 3년 이상 혼인생활 중인 부부

문의 010-4515-3854 의정부ME

**제32차 의정부교구 가톨릭약혼자주말**

일상의 긴장에서 벗어나 짝궁과 함께 이해, 일치, 사랑을 위한 의사소통 프로그램

일시 8/23(금) 19시 ~ 25(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 (파주시 한빛로 21)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48 가정사목부



신청 ▶



 **미사 · 피정 ▶▶**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7/13(토) 10시, 풍동 성당  
7/20(토) 10시, 주교좌 의정부 성당  
문의: 02-3673-2525

**의정부교구 성령새신 금요밤 기도회**

찬양과 치유기도회  
일시: 7/11(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대성전  
문의: 010-2127-0032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천당예복을 갖추어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일시: 7/13(토) 14시~18시 / 장소: 구산성지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지도: 정종득 신부, 성가: 고영민 / 회비: 1만원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ICPE 흡송기도회 및 미사**

일시: 7/14(주일) 15시~18시 [미사 있음]  
장소: 과달루페 외방선교회 (합정동)  
문의: 010-8724-4787, ICPE 카톡플친

**토아올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일시: 매주(화) 12:30~16시  
장소: 명동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강사: 7/9 진홍장 다두 회장  
문의: 010-5514-4077 회장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열두 소예언서  
효소단식: 7/11(목)~14(주일), 8/9(금)~12(월)  
성경완독: 7/26(금)~8/3(토), 8/23(금)~31(토),  
8/15(목)~17(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피정의집

**젊은이를 위한 꽃동네 성령피정**

일시: 8/2(금) 14시 ~ 4(주일) 16시  
장소: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대상: 중학생 이상 미혼 남녀  
회비: 10만원  
문의: 010-5490-5345, myungkkot@daum.net

**ICPE SONE 새로운 복음화 학교**

일시: 8/13(화)~18(주일)  
장소: 수원 양지 영성교육원  
대상: 가톨릭 신자 (예비신자 가능)  
문의: 010-5531-1008, ICPE 카톡플친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피정**

개방의날 무료피정: 8/2(금), 매월 첫(금) 10시~15:30  
수요개방미사: 매주(수) 15시  
대침목피정: 8/16(금)~18(주일)  
다네이영성수련피정: 8/22(목)~25(주일)  
문의: 02-990-1004 예수고난회 서울명상의집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날짜: 7/19(금)~22(월), 8/16(금)~19(월),  
9/20(금)~23(월)  
장소: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회비: 36만원 (효소비 포함)  
문의: 010-9363-7784 글라라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여름성소캠프**

중고등부: 8/2(금)~4(주일) / 일반부: 8/6(화)~8(목)  
장소: 경남 산청 성심원  
문의: 010-6608-3217 성소담당신부 [선착순]

**7월 토요일 치유 대피정**

일시: 7/13(토) 12시~17:30 [미사 안수]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중식무료)  
문의: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 사랑의성령봉사회

**바로로말과 함께하는 피정**

일시: 8/3(토)~4(주일)  
장소: 경기도 여주  
대상: 여중고생 (14~19세)  
문의: 010-7251-1908

**예수수도회 영성센터(서울) 프로그램**

세월의 지혜와 영성 피정: 7/15(월)~19(금)  
대상: 65세 이상  
영신수련 2박3일 피정: 7/19(금)~21(주일)  
영신수련 8일 피정: 8/1(목)~10(토)  
장소: 서울 오류동 (1,7호선 온수역 10분)  
문의: 010-6890-7223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성무일도,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생태순례: 9/1(주일)~3(화), 9/20(금)~22(주일)  
우도포함: 7/25(목)~28(주일), 8/2(금)~5(월)  
8/14(수)~17(토), 8/21(수)~23(금)  
추자도포함: 9/7(토)~10(화)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과 자연순례 (연중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분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우도해변포함: 7/25(목)~28(주일)  
8/1(목)~4(주일), 8/6(화)~8(목)  
8/13(토)~16(화), 8/24(토)~26(월)  
추자도포함: 9/11(수)~14(토)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성지순례 &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전례**

8/17(토)~19(월) 원주7~청주5~안동7  
8/24(토)~26(월) 대구17  
10/12(토)~16(수) 울릉도, 독도~수도원  
출발: 서울 명동 / 문의: 010-3807-1784

 **교육 · 모집 ▶▶**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여름캠프 보조지도자 모집**

분야: 어린이신앙캠프 보조 진행  
문의: 031-840-0742 활동운영팀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성가발성 노래교실**

CPBC <다함께 성가를> 이호중 교수 직강  
시스피나 음악원: 일산(금) 11시, 문산(토) 18시  
문의: 010-9842-8818

**마리아학교 9월 학기 수강자 모집**

내용: 마리아론과 33일 봉헌 기도  
<대면반> 9/3~2/16, 매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205호 / (6개월)  
<줌반> 9/5~2/16, 매주(목) 20시~22시  
문의: 010-2724-4819 마리아학교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대상	장소	문 의
	미리내 천주성삼성직수도회	수도 생활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10-5195-3217
	성도미니코선교수녀회	7/7(주일) 15시	도미니코 수녀원 (서울 미아동)	010-5604-1882
	의정부가르멜여자수도원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35세 미만 미혼 여성		010-8078-7016
	한국순교복자발마수녀회	만 45세 이하 독신여성 (예외 상담가능)		010-3355-4997, 010-8669-6383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고양, 서울시 순으로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대건카리타스-조이빌리지(중증발달장애인가주시설)직원 모집**

분야: 사회복지사(교대근무) - 만 60세 이하  
주소: 파주시 광탄면 심곡로 76-25  
문의: 031-947-2720

**유니파스 청소년, 성인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

연습: 성인 매월 1,3주 / 청소년 매월 2,4주  
장소: 원흥동 성당  
문의: 010-2736-5727, 010-5031-3475

**예수회 센터 가톨릭강좌 - 9월 개강**

월요피정(무료): 성경의 인물과 이야기들  
그리스도교의 성스러운 공간과 순례  
성경대학: 사도행전과 바오로서간2  
죽음수업: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영성과 심리의 통합 두 번째 길: 가치와 욕구  
구약성경 아카데미: 하느님 백성의 첫째성경 - 구약성경의 기초  
마르코의 예수 이야기  
삶의 의미: 철학적 도발, 신학적 리액션  
- 각 10~12주/ 현장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문의: 02-3276-7733, center.jesuits.kr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9/26(목) 조지아, 아르메니아(초기교회) (10일, 440만원)  
10/9(수) 튀르키예, 그리스 (12일, 470만원)  
10/22(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 (4일, 130만원)  
11/4(월)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 (12일, 530만원)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야외수영장 개장**

주말개장: 7/13(토)부터 매주 토·주일  
완전개장: 7/22(월)~8/18(주일)  
(개인 및 단체 하루이용 가능)

입장료: 15,000원 (그늘막 무료)

문의: 031-840-0018  
※ 자세한 사항은 hanmaum84.com 참조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위치: 인천 서구 당하동 산152-1 백석묘지 내  
준공: 하늘의문 성당 2025년 상반기 준공(예정)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위치 선정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 60년 (30년, 추가30년 가능)  
보증금: 400만원, 500만원  
접수: 032-765-7251, haneul.caincheon.or.kr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제42차 성인 필리핀 영어연수&해외봉사  
출국: 8/25(주일) [4주 이상, 전국 모집]  
특징: 1일 6시간 수업 + 주말해외봉사 (택)  
학비지원, 대구가톨릭청소년회  
문의: 053-593-1273 대구시청소년수련원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0/16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1일)  
10/21 산티아고 118km 도보 순례 (12일)  
10/23 발칸 3개국, 메추고리에, 헝가리 (12일)  
11/21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님 발현지 (10일)  
12/20 이탈리아 일주 (10일, 정기회년 전대사)  
문의: 02-319-2533, catholictravel.co.kr  
명동 가톨릭회관 619호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9/21(토)~26(목) 베트남, 마카오 (172만원)  
10/10(목)~19(토) 서부지중해 크루즈 (539만원)  
10/15(화)~26(토) 산티아고 도보순례 (480만원)  
문의: 02-2281-9070 가톨릭신문투어

**늘푸른 자활의집 - 무료 주거형 치료공동체**

저소득층 알코올, 도박, 컴퓨터 중독치료  
대상: 19~50세 남성 / 그리스도수도회 운영  
문의: 031-953-3492, green1004.or.kr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9/11(수) 추석특선 알프스와중세수도원 (545만원)  
9/23(월) 11/18(월) 베트남 다낭 (5일, 155만원)  
10/13(주일) 성모님 3대 발현지 (13일, 485만원)  
10/22(화) 이탈리아 일주 (10일, 520만원)  
11/18(월) 스페인, 포르투갈 (12일, 449만원)  
2025년 1/6(월) 멕시코 과달루페 (10일)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2024 모여라 가톨릭 영상 공모전**

주제: 신앙캠프 뭐하니?  
(여름 신앙학교와 관련된 자유 영상)  
자격: 본당, 단체, 수도회, 세례받은 신자 누구나  
접수: https://mocatholic.or.kr  
신청서 작성 후 영상 등록  
기간: 8/1(목)~9/1(주일)  
문의: 031-8019-5403 수원교구 모여라가톨릭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도박, 인터넷게임)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  
진료: 월~금 (09시~17시)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일본 가고시마교구 성지순례**

가고시마, 나가사키, 아키타, 북해도, 도쿄, 교토  
3박 4일, 120만원 / 문의: 010-3645-9028

천주교의정부교구 카카오톡 채널

DIocese of Uijeongbu

**성서**

**일간성서 <7월호>**

주제: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진 은총 (에페 1,3-14)  
강사: 김재덕 신부 (대전교구, 로마 교황청립 성서대학)  
일정: 7/4(목), 11(목), 18(목) [총3회 업로드]

유튜브 채널 시청

**채널**

**청소년사목국 통합 카카오톡채널 오픈**

새롭게 단장한 청소년사목국 카카오톡채널로 초대합니다.

오픈 이벤트에 참여하고 선물도 받아주세요!

※ 기존의 UJB어린이사목부·UJB청소년사목부·

UJB청년사목부 채널은 운영이 종료됩니다. 채널

## 주보(主保) 성인

주보 성인은 하느님 앞에서 신자 개인 또는 한 공동체를 중재하고 보호하는 수호자로 정한 성인입니다. 가톨릭 신자들은 성인 성녀 중 각자 공경하는 분을 정해 주보로 모시고 특별한 보호를 청하면서 그 모범을 따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세례성사 때, 자신이 공경할 성인 성녀의 이름을 세례명으로 받습니다. 때로는 삼위일체 하느님, 예수님의 생애나 이름, 성령, 성모님의 칭호, 천사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가톨릭교회에서 주보 성인을 모시는 신학적 근거는 ‘모든 성인의 통공’(2코린 13,13) 교리와 하느님 백성 각자는 예수님 안에서 저마다 고유한 역할을 맡는다는 ‘그리스도의 신비체’(1코린 1,9; 10,16; 12,13) 교리입니다. 교회에서 주보 성인을 정하여 공경한 것은 4세기 초부터입니다. 당시에는 주로 사도나 순교자를 주보 성인으로 정했는데, 특히 순교자의 경우 무덤이나 유해 위에 성당을 지어 봉헌하고 그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다 545년 라벤나 교회를 미카엘 대천사에게 봉헌하면서부터 천사들도 주보가 되었습니다.

순교자를 도시의 주보 성인으로 정해 공경한 최초의 사람은 밀라노의 주교 성 암브로시오(339?~397)입니다. 그는 그 도시에서 순교한 성 제르바시오(Gervasius)와 프로타시오(Protasius)를 386년에 밀라노의 주보 성인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이후, 400년경에는 주보 성인의 개념이 여러 지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주보 성인으로 선정되는 기준이 순교자 유해의 안치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준은 점차 느슨해져 나중에는 ‘그 지역과 관련된 성인’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예로, 밀라노의 주보 성인은 훗날 성 암브로시오로 바뀌었고, 이탈리아는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와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의 경우 성 루도비코였으나, 1922년 아르크의 성녀 요안나와 리지외의 성녀 테레사로 정해졌습니다.

우리 교구의 주보 성인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입니다. 예전에는 7월 5일 김대건 신부님의 경축일을 ‘대축일’로 지냈지만, 같은 성인의 축일을 동일하게 두 번 지낼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9월 20일에만 한국 순교자들 ‘대축일’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7월 5일 미사를 ‘신심(기원) 제1등급’ 곧 대축일 급으로 지낼 수 있게 결정하였고, 우리 교구는 오늘 교구의 주보 성인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의 신심 미사를 주일로 경축 이동하여 성대하게 거행합니다. 참고로, 20년 전 2004년 6월 24일 의정부교구의 설립을 알리는 칙서가 나왔을 때, 이를 주한 교황대사관과 서울대교구에서 공식 발표한 날이 바로 7월 5일이었습니다. 오늘 의정부교구의 주보인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의 경축 이동 미사를 봉헌하며 하느님께서 우리 교구의 모든 신자를 끊임없이 축복해주시도록 김대건 신부님께 전구를 청하도록 합시다. ☺